

유행성 각결막염 (돌림눈병)

유행성 각결막염은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라는 병원체의 전염으로 생기는 일종의 특수한 급성각결막염이며 "일반 눈병" 과 "아폴로 눈병(출혈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병원체는 전염성이 몹시 강하며, 예방하는 방법이나 특수한 치료방법이 아직 없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습니다. 이 눈병은 연령에 구별없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감염되며 대개 7일(출혈성은 2일)의 잠복기를 지나 한쪽 눈에 발생하였다가, 다른 눈에 옮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세는 갑자기 눈이 붉어지고, 눈물이 많이 나며, 티가 들어간 것처럼 몹시 개끄럽고, 눈이 부십니다.(출혈성은 눈이 빨강게 보이는 출혈이 동반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전염되면 귀밑과 턱밑에 있는 임파선이 부어서 통증을 느끼며 감기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곱이 말라 붙어서 눈뜨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 7일동안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차로 심하여지다가

2-3주일(출혈성은 7일) 지나면 자연히 낫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나아가는 도중에 각막염등의 합병증이 일어나서 시력이 흐리게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의할 점

1.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 아직 없으므로 이 눈병의特效약은 아직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히 잘 낫습니다. 2-3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합병증 발생여부에 대한 진찰을 받으시면서 낫는 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간혹 유아, 소아, 노인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심한 각막염이나 이차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다 치료에 신중을 기하셔야합니다.

2. 안약사용의 목적은 세균의 이차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할 뿐입니다.

안과 전문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함부로 약을 눈에 넣으면 더 악화될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안약을 넣지 마십시오. 눈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안약도 최대한 적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직 전염되지 않은 반대쪽 눈에 예방목적으로 안약을 미리 넣게 되면 오히려 전염이 더 빨리 될 수 있으니, 반대쪽 눈이 확실하게 충혈과 눈곱이 발생한 후에 안약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눈을 만지지 마십시오. 가렵다고 눈을 비비거나 또는 소금물(식염수)로 눈을 씻으면 자극을 받아 더 악화됩니다. 세수 할 때에는 눈속에 물을 넣지 않아야 하며, 눈썹에 붙어있는 눈곱을 살살 닦아내시고 눈주위만 닦으십시오. 눈을 가리는 안대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이 눈병은 가족이나 주위사람에게 전염되기 쉬우니, 자주 손과 수도꼭지를 비누물로 깨끗이 씻고, 수건을 따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환자가 쓰던 수건은 꼭 삶아 빨으시고 문의 손잡이나 환자가 만졌던 곳은 자주 휴지로 닦아 주십시오. 가족들의 예방을 위해서 안약을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전염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더 위험하며, 오염된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5. 이 눈병을 앓는 환자는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만진다거나, 목욕탕, 찜질방, 수영장 같은 곳에는 출입을 삼가하심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